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 커뮤니티에 형성된 치유의 공간에 대한 지리적 고찰

박수경*

A Geographical Study of Therapeutic Spaces after the Disaster of the MV Sewol in a Local Community

Sookyung Park*

요약 :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의 고잔동과 와동을 중심으로 나타난 대안적 치유의 공간의 지리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월호 참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치유 대상의 스펙트럼이 넓게 퍼져 있어 개별 치유의 공간이 지향하고 있는 치유의 목표는 그 주체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현재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은 약 7개 내외로 추산되며, 민간에서 주도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또한 이러한 공간은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단원고등학교 주변이되 시선에서 약간 빗겨간 곳에 위치해 있고, 특별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깨어진 일상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한 단순하며, 반복적인 일, 예를 들어, 식사, 뜨개질, 학습 등을 주요 치유의 활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치유의 대상이 개별 치유의 공간을 장소로 점점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은 제3자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치유의 주체들이 스스로 끌어가거나, 기억하며, 심지어 앞으로의 방향까지 설계하고 있어 마치 그들만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월호 참사는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지역주민 등까지 넓은 범위의 집단에게 트라우마를 지운 사건이었던 만큼 치유의 공간이 지원하는 대상은 폭넓지만, 개별 치유의 공간을 활용하는 대상은 겹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역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집단 트라우마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네트워크를 조밀하게 유지하고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셋째, 참사와 같은 트라우마 극복에 있어 사건의 지속적인 기억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되는데,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피로감 혹은 갈등, 노후화된 안산시를 떠나는 이들, 시간이 지나감에 따른 퇴색되는 분위기 등이 기억의 유지에 위협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치유의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다양한 이벤트 기획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안산시 외의 다른 단체와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어 : 세월호 참사, 안산시, 치유의 공간, 일상의 회복, 치유의 네트워크

Abstract : The ultimat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rapeutic spaces where have been appeared in Wa-dong and Gojan-dong, Ansan-si after the disaster of the MV Sewol. As looking into the inside, the aim of the therapeutic spaces, which cover each target group (victims) individually, is various and different because the disaster of the MV Sewol generated various direct and indirect victims requiring healing. The therapeutic spaces are estimated at about 10 organizations and are led by private agents predominantly. Furthermore, the therapeutic spaces are located near, but are aside from Danwon

* 상명대학교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Sangmyung University), maria1570@smu.ac.kr

high school where many students are reported killed and injured in the incident. And the therapeutic spaces provide simple and repetitive diversions, for example, having a meal, knitting and studying, rather than special programs to restore a broken daily life to the original state. On the basis of such a background,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therapeutic spaces related to the disaster of the MV Sewol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seems that target groups accept the therapeutic spaces as the concept of place gradually. Even though most of the therapeutic spaces were suggested by third parties at first, target groups are involved in the management and recollection of their own therapeutic spaces as well as the plan for a future direction now; and consider the therapeutic spaces as exclusive properties. Second, the disaster of the MV Sewol have embedded collective trauma to not only direct victims, but extensive groups such as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relatives, friends and neighbors as noted earlier. Therefore, the therapeutic spaces support comprehensive target groups; but each therapeutic space is not overlapped each other. However, to solve collective trauma in a local community effectively, the therapeutic spaces are networked closely and build a regular cooperative system. Third, a continuous memory is mentioned as an important point to overcome collective trauma, but some phenomena such as fatigue and conflict with neighbors, out-migrants and a faded atmosphere as time passes act as risk factors in Ansan-si. To keep a continuous memory, the therapeutic spaces attempt the recovery of local communities and devise various events, for example, cultural performances; furthermore, are closely connected with external organizations.

Key Words : Disaster of the MV Sewol, Ansan-si, Local Community, Therapeutic Spaces, Recovery of Daily Life

1. 서론

미국의 사회학자 Erikson(1976)은 트라우마를 개인적 트라우마(Individual trauma)와 집단적 트라우마(collective trauma)로 규정하면서 개인적 트라우마는 잔혹한 어떤 힘에 의해 개인의 방어체계가 완전히 파괴되거나,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집단적 트라우마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인간에 의해 발발하는 전쟁·사고·참사, 누적적인 빈곤·학대·질병·박탈 등이 집단-예를 들어, 가족, 커뮤니티, 사회 전체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설명한 바 있다(Erikson, 1976). 문제는 개인적 트라우마는 지원 혹은 회복 시스템과 적절한 치료 방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지만, 집단적 트라우마는 유감과 사죄의 표현을 전제한다는 점이다. 특히, 집단적 트라우마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 사회적 불신, 인간에 대한 저평가 혹은 잔혹함, 굴욕, 삶에 대한 무가치, 사회적 분열 등의 위협하고 불안정한 감정으로 전이되기 쉽고, 특정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연령·인종·성 차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이전의 해

결하지 못한 집단적 트라우마 등과 결합해 더 큰 사회 문제와 혼란을 야기하거나, 부도덕한 가치관에 편승되기 쉽기 때문에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aul, 2014, 3-4).

그렇지만 현실과 이론의 차이는 좁혀질 수 없는 것인가. 2014년 4월 16일, 선박 침몰과 구조 실패, 그로 인한 304명의 희생자 발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정치, 국가공동체, 관료기구의 능력과 행태, 가치와 윤리 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모순점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여과 없이 보여준 절대 슬픔으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박명림, 2015, 10) 앞에서 치유의 본질은 무엇인지 새삼 고민케 된다. 왜냐하면 사전적 치유는 아픈 혹은 병든 곳을 낫게 한다는 뜻이지만, 더 근본적인 치유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부분과 전체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나 혹은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의 치유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개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더 나아가서는 국가 차원의 개혁 및 장치 마련과 사회 전체적인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일에 달려 있다는 것은 이미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년여

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미 논의의 끝을 보았어야 할 보상과 배상, 기념과 추모 등의 문제는 거론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치유기 어려운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인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처럼 치유의 의미가 무색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치유를 향한 움직임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민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안산시의 고잔동과 와동을 중심으로 나타난 세월호 참사 관련 대안적 치유의 공간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을 제공-예를 들어, 밥 먹기, 뜨개질, 학습활동 등과 같은-하거나, 아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집에서 슬픔을 사그라지게 하는 것이 어려운 유가족에게 아픔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나온 학생들만의 공간 확보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공동체 회복을 우선의 목표로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고, 이해를 구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코소보사태, 미국의 9.11 테러 등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대한 치유 프로세스의 핵심이 지역공동체의 탄탄한 네트워크였던 것처럼(Saul, 2014), 지리학에서 치유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Gesler가 치유의 핵심은 바로 친밀감, 관심의 네트워크, 상호간의 강한 유대감 형성에 있다고 밝혔던 것처럼(Gesler, 1992; Williams, 1998) 세월호 참사의 치유도 자연스럽게 형성된 바로 이러한 대안적 치유의 공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 고잔동과 와동의 지역 커뮤니티에 형성된 대안적 치유의 공간에서의 핵심적인 치유의 활동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 치유의 활동이 치유의 공간 내, 치유의 공간 사이에서의 관계, 치유의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내외의 변화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치유의 공간 기저에 깔려 있는 의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 치유의 공간에 대한 지리학적 담론과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형태인 코소보사태, 미국의 9.11 테러, 영국의 힐스보로 참사, 일본 동일본 지

진 시 발생한 오카와초등학교 참사 등을 통해 절대 슬픔의 치유 과정을 알아보며, 2)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에 형성된 치유의 공간의 특성과 주요 활동 등에 대해 검토하고, 3) 민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안적 치유의 공간인 <치유공간 이웃>, <우리함께>, <소금버스(꼬두물정류장)>, <섬표>의 특징을 지리적 관점-장소로서의 인식, 네트워크 구축, 치유의 문화 창출-에서 확인하며, 4)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의 회복에 있어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민간이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마련한 공간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며, 이러한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종교단체 지원 형태를 제외한 4개의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민간을 기반으로 하는 심리치료, 상담이 아닌 대안적 행태를 중심으로 하는 곳으로 그 개념을 규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2016년 7~8월 동안 안산시 고잔동과 와동에 위치한 대안적인 치유의 공간인 <치유공간 이웃>, <우리함께>, <소금버스(꼬두물정류장)>, <섬표>를 방문해 각 민간단체의 대표자에게 반구조화 인터뷰를 실시했고, 핵심 질문의 내용은 1) 설립 배경과 운영(출자) 방식, 2) 주요한 치유 프로그램과 활동 사항, 3) 타 기관과의 협력 관계(안산시 내, 안산시 외), 4) 앞으로의 발전 방향, 5) 핵심적 치유의 키워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치유에 이르는 해법은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풀어가는 과정이 아직도 멀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 피해자, 지역주민, 더 나아가 슬픔을 공유하는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온전한 치유에 닿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월호 참사 후 등장한 대안적인 치유의 공간에서 하는 치유 활동은 어쩌면 치유보다는 완화-온전함을 향한 근본적 접근이 아닌, 일시적인 대처 혹은 일종의 심리적 회피에 가깝다는 의미에서-에 가까울지 모르며(Willis, 2009; 박수경, 2014), 원상태로의 회귀라는 말 자체는 절대 슬픔 앞에서 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대안적 치유의 공간에서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은 슬픔에

서 온전함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누적 중인 힘ियो, 언젠가 드러나게 될 진실을 위한 세월호 참사 직·간접 피해자들의 기억의 공동체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안산시에 나타난 대안적 치유의 공간의 초기 상황을 검토한다는 것은 지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접근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치유의 공간에 대한 지리학적 담론과 절대 슬픔의 치유 과정

지리학에서 치유에 관한 공식적인 언급은 미국의 지리학자 Gesler(1992)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치유의 경관을 치유 혹은 치료와 관련된 물리적이며, 심리적인 요소를 아우르는 장소, 배경, 상황, 현장, 환경 등으로 명하고(Gesler, 1992; Williams, 1998; Smyth, 2005),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치유의 효능이 있다는 명성, 평판, 이름이 어느 정도 유지될 때 바로 그곳을 치유의 경관이라고 규정했다(Gesler, 1993, 171; 박수경, 2016, 530). 여기에서 말하는 물리적, 정신적, 영적인 치유의 경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우선 물리적 치유의 경관은 일반 병동, 공원, 온천 등과 같은 신체적 활동이 원활하도록 하는 곳이고, 정신적 치유의 경관은 정신병동, 심리상담센터 등과 같이 정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영적인 치유의 경관은 프랑스의 루르드나 스페인의 산티아고 등의 성지 혹은 순례지 등과 같이 종교적으로 치유하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칭한다(박수경, 2014, 550). 지리학적 탐구의 의의는 이러한 곳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애착과 그에 따른 연관성에 대해 고찰하고, 이러한 애착이 전통, 사회, 심지어 국가 혹은 공동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나아가 지속적이고, 건강한 신체, 정신 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English *et al.*, 2008; 박수경, 2014, 548).

최근에 이르러 치유의 경관은 다양한 지리적 개념

과 연결되기도 하는데, 특히 본 연구에서 중심으로 다루는 치유의 공간에 대해 Smyth(2005)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그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초창기 치유의 경관에서 주로 다루었던 주제는 장소적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동안의 연구는 치유의 효험이 있다는 명성, 평판,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특정한 온천, 신성한 물, 지형 등의 자연물에 대해 주목했었고, 여기에서 어떻게 건강을 향상시키고, 유지시키는지 역사적, 종교적,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한 결과였던 것이다. 이에 반해, 오늘날의 관심사는 치유의 공간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날 치유는 주로 조성된 환경(built environment) 혹은 만들어진 공간(constructed space)-예를 들어, 분만실, 가족치료실, 심지어 감옥, 학교, 운동센터 등과 같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관련 연구자의 관심사도 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위치, 실내디자인, 건축양식, 공간을 채우는 사물, 인공조형물, 언어 등과 같은 상징적 요소에 대한 검토가 치유에 이르는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의료 혹은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특정 질병과 건강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투영되는지 검증하는 하나의 창구의 역할이며, 우리 사회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Smyth, 2005; 박수경, 2014).

그렇다면 본 연구와 연관성이 있는 정신적 치유의 공간에 대한 담론은 지리학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Parr(2007), Curtis(2010), Rose(2012), Wood *et al.*(2013) 등의 결과를 들 수 있는데, 이 저작들의 공통적인 지향점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감이 나날이 높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잘 산다고 하는 것-소위 말하는 웰빙(well-being)- 혹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Parr(2007)는 농촌에서의 농사짓기 혹은 도시에서의 공원 조성, 정원 가꾸기, 농작물 기르기 등과 같은 자연에서의 작업(nature work)은 정신건강의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이들-노인, 여성, 낮은 경제적 지위

에 있는 자 등도 포함-이 주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원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슷한 관점에서 Curtis(2010)는 정신적으로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자연적인 혹은 인공적인 공간에 대해 소개하면서 정신적(혹은 심리적) 건강은 신체적 건강으로, 신체적 건강은 지역공동체의 건강으로, 지역공동체의 건강은 한 사회의 건강과 유기적으로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출발이 되는 정신적 건강을 돌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중의적 의미에서 건강한 생태계(ecosystem)의 항상성 유지가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정신적 문제, 구체적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섭식장애, 불안증 등과 같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봤을 범한 증상에 대해 이미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고, 같은 맥락에서 잘 사는 것 혹은 행복과 관련된 접근의 누적적 결과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그러한 결과로 정신적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크지 않은 서구의 시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까지 지리학에서 주요하게 다룬 정신적 치유의 공간에 대한 담론은 인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범주 내의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한층 더 여유롭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 지리학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했었던 것이 그간의 연구 방향이었다고 귀결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을 포함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지리학에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범위-사실 정신건강의 경증을 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의 그것이 중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룰 절대적 슬픔과 같이 쉽게 회복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난 문제에 대해 지리적 접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전에 트라우마는 무엇이고, 트라우마 치유의 주요한 과정과 요소는 무엇이며, 기존의 트라우마 치유의 몇몇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서두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트라우마는 예상치 못한 사건 혹은 사고가 강하게, 짧은 시간 안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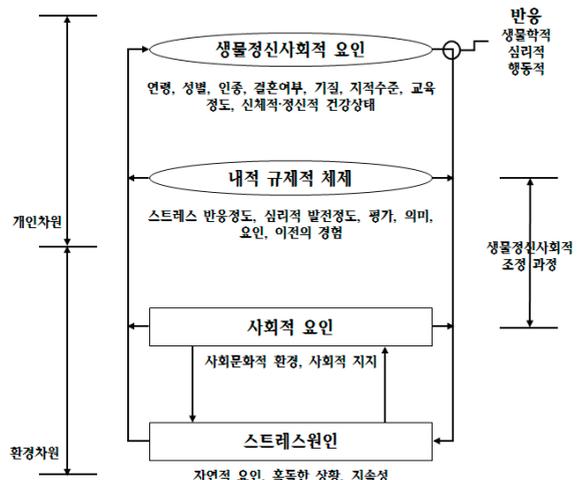


그림 1. 트라우마 스트레스 모델

출처: Staab *et al.*, (1999)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

합적으로 발현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허리케인·지진·홍수 등과 같은 자연적 현상과 대규모 산업 시설 혹은 핵관련 시설의 문제·교통사고·테러·잔인한 범행 등과 같이 인간으로 인해 기인하는 현상을 포함한다(Norris *et al.*, 2008).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개인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으로 나뉘 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차원은 나이, 성, 인종, 지적 수준, 신체 및 정신건강 정도 등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이며, 사회적인 요인(생물정신사회적 요인)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심리적인 발달 수준, 이전의 경험 등과 같은 내적 규제의 체제로 구성된다. 또한 환경적 요인은 사회문화적 환경, 사회적 지원 혹은 지지체계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과 동일시된다(그림 1 참조). 이러한 트라우마에 의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생물정신사회적 조정 과정은 개인적 차원에서 생물정신사회적 요인과 환경적 차원에서 사회적 요인에 걸쳐서 나타나게 된다(Staab *et al.*, 1999).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가? 특히, 본 연구의 주제와 연결시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공동체 회복력(community resilience)의 조성이라 할 수 있는데(Norris *et al.*, 2008), 이를 위해서는 표 1과 같은 지원이 전제가 될 필요가 있다(표 1 참조). 다시 말해, 트라우마에 의해 발생되

표 1. 사회적 지원의 형태와 기능

사회적 지원 형태	사회적 지원 기능
물리적 지원	실질적인 물건, 서비스 등의 지원
심리적 지원	사람에 대한 신뢰와 가치 회복, 동감, 지지, 돌봄, 응원
존중적 지원	친구와 같은 관계 유지, 감정적 발산의 격려
정보적 지원	조언, 유도, 정보
동료애적 지원	타인과의 여가 지원, 타인과의 연합, 다양한 압목적 상호작용

출처: Eynde and Veno, (1999)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

는 스트레스에 대한 생물정신사회적 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지원의 형태와 기능은 크게 물리적 지원, 심리적 지원, 존중적 지원, 정보적 지원, 동료애적 지원의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물리적 지원은 실질적인 물건, 서비스 등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리적 지원은 사람에 대한 신뢰와 가치 회복, 동감, 지지, 돌봄, 응원 등을 말하는 것이며, 존중적 지지는 친구와 같은 관계의 유지, 감정적 발산의 격려 등을 뜻한다. 이에 더해 조언, 유도, 정보 등과 같은 정보적 지원, 타인과의 여가 지원, 타인과의 연합, 다양한 압목적 상호작용 등을 포함하는 동료애적 지원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Eynde and Veno, 1999). 또한 이러한 사회적 지원의 형태와 기능은 집단적 트라우마 회복의 지향점, 다시 말해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충분히 끌어내기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을 포함한다. 첫째, 트라우마를 통해 잃었던 의미의 재생산, 긍정적 태도, 초월, 정신 등과 같은 신념의 체계(belief systems)의 재정립, 둘째, 유연성, (피해) 집단의 유기적 연결성, 경제적이면서 조직적인 지원 등과 같은 조직적 형태(organizational patterns)의 구축, 셋째, 투명하고, 공개적인 감정의 표현, 협력적인 문제 해결 등과 같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communication/problem solving)의 지향 등이 바로 그것이다(Saul, 2014, 8).

더 나아가 이렇게 고찰된 지원의 형태와 기능은 그림 2와 같이 트라우마 문제 해결의 네 단계 과정인 고통인지, 문제해석, 대안마련, 대안제정 등을 거쳐 (피

해자들이) 원래 상태로 회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Yates *et al.*, 1999)(그림 2 참조). 첫 번째 고통인지 과정은 참사와 관련된 어떤 변화의 확인을 뛰어넘어 한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 예를 들어, 이전의 경험, 외부의 정보, 상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참사와 관련된 2차 경험 등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 신체적 혹은 감정적인 붕괴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개개인에 따른 트라우마 수준을 설정하고, 신체, 인지, 심리 등의 능력에 기초한 대안 제시에도 활용한다. 두 번째 단계는 문제해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문제의 개요를 확인하는 과정을 선두에 둔다. 다시 말해, 참사의 원인 혹은 이유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사회적인) 오명을 파악하며, 참사와 관련된 2차적인 경험을 확인함으로써 문제의 개요를 분명히 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겪는 충격에 붙여지는 실질적인 명칭(증세)과 그들이 예상하는 특정한 징후, 추이, 지속기간, 조정가능성 등을 종합해 문제를 정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해석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다년간의 임상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심리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피해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트라우마의 문제점이 모호해 적절한 대안이 지원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는 대안마련으로 이는 크게 감정적인 대처와 문제해결적 대처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내면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후자는 외부적인 환경을 창출하거나 문제점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상당히 다양하고, 광범위한 해결방식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는 대안에 대한 지식, 유용성 인지, 효용 지각, 심리적 가격 인지, 책임 등을 통해 정리되고, 대안제정의 과정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으로 구체화된다. 마지막으로 대안제정의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안을 선택하게 되며, 선택된 대안은 이들을 돕는 가족, 친구, 더 나아가서 전문가 집단 등과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고통 경감의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활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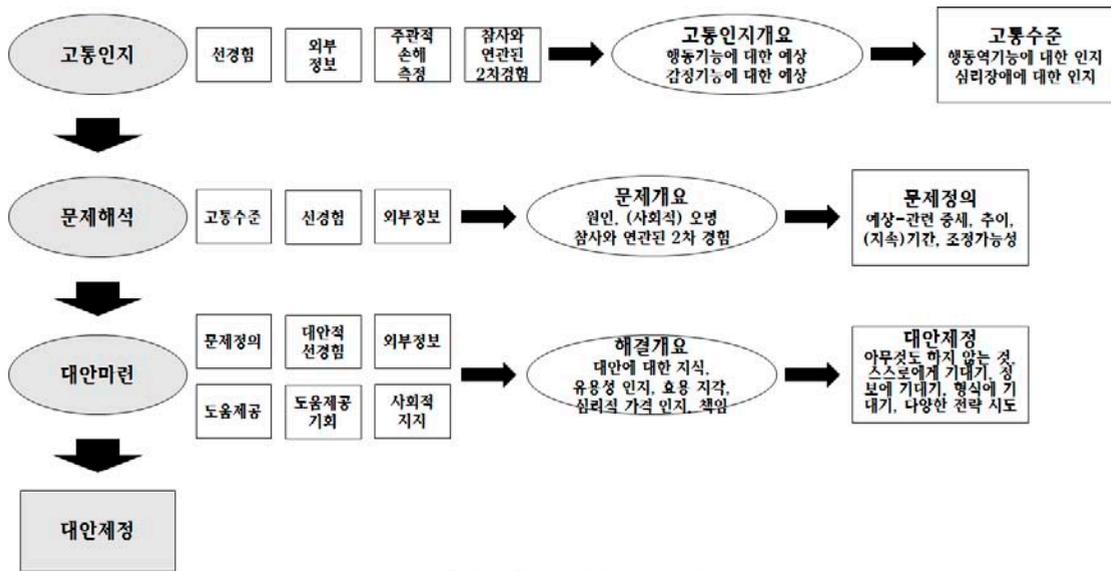


그림 2. 참사 이후의 트라우마 회복의 과정
출처: Yates *et al.* (1999)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

그렇다면 상위에서 살펴본 트라우마 회복은 실제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는가? 우선, 1999년 코소보 사태 이후 나타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코소보사태 이후, 다수의 알바니아 인들은 상실, 분노, 지리적 이동 등에 의해 정신적 문제들이 만연한 환경 하에서 놓일 수밖에 없었고, 집을 떠난 난민캠프에서의 삶, 매일 눈앞에서 펼쳐진 심각한 위험성, 가족과 친구의 죽음의 직면 등은 트라우마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 의료진 등은 이러한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와 지역정신건강에 관련된 NGO와 함께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조직을 구축했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가족과 공동체의 회복이었는데, 가족은 특정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코소보와 같이 수입이 낮은 국가의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 발현되는 사회와 국가의 고유한 내재적 힘과 핵심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더 강조했다. 그리고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에 대해 몇몇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 시민사회 등이 모두 나서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공동체가

함께 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었다.

미국의 9.11 테러 이후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대처는 상당히 광범위하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9.11 테러는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벌어진 항공기 납치 등 동시다발 자살 테러를 말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등이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눈앞에서 벌어졌던,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건이었던 만큼 이와 관련된 충격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다수의 희생자 및 유가족이 발생한 뉴욕을 중심으로 원상태로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빠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책, 두려움, 불안감, 불안정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한 연속적인 커뮤니티 포럼의 개최(이웃과의 관계 회복 차원), 그라운드제로의 회복과 재건(추모공원 포함), 큰 충격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받았을 학생들을 위한 학교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취지의 연극 모임, 아트 스튜디오 투어 등 수많은 모임과 예술 활동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러한 대처가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인 측면으로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안되기도 했었다(Saul, 2014).

영국의 힐스보로 참사는 1989년 4월 15일 노팅엄 포레스트와 리버풀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준결승 경기가 열린 셰필드 힐스보로 경기장에서 관중 96명이 압사한 사고를 말한다. 당시 경기장 입구로 수천 명의 팬들이 몰려오자 안전사고를 우려한 경찰이 출구 일부를 열어 인파를 분산시키려 했는데, 오히려 이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관중이 입석으로 몰려들었다. 이미 입석이 만원이라는 사실을 모르던 입장객들이 계속 앞서사람들을 밀어내자 경기에 열중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관중 다수가 경기장에 설치된 철제 보호철망과 뒤에서 밀려드는 인파 사이에 끼어 질식사했다. 힐스보로 참사 후 피해자와 유가족은 위험한 행동으로 대형 인명사고를 자초했다는 경찰과 정부 당국자들의 주장에 고통을 받아왔다. 그러나 진상조사 결과 경찰이 책임을 팬들에게 돌리려고 관련 사실

을 은폐하려한 증거가 폭로되었고, 결국 경찰의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로 평결이 나오면서 27년 만에 관련 진실이 밝혀졌다. 힐스보로 참사 이후에 나타난 주요한 치유의 상징성의 예로는 리버풀 대성당 내부의 힐스보로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eternal flame)’의 설립, 리버풀 감독이었던 케니 달글리시가 유가족과 함께 한 위로와 슬픔의 공유, 리버풀 FC의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유니폼에 희생자 수인 96을 새겨놓은 일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리버풀 팬들이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거야(You’ll Never Walk Alone)’라는 응원가를 통해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지와 명예회복의 축하를 전했던 일도 빼놓을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현지인론과의 기자회견, 영화상영과 강연,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세월호 참사는 단순사고에 의한 참사가 아니라, 미숙한 대처로 인재를 불러온 참사라는 점을 공고히 한 바 있다(연합뉴스, 2016; 오마이뉴스, 2016).

표 2. 트라우마 치유의 사례 개요와 트라우마 치유의 핵심 요소

주요사례	원인	대책	치유의 공통키워드
코소보사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소보지역 독립을 위한 세르비아계와 알바니아계 사이의 내전 (인종청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보건기구(WHO)와 지역정신건강에 관련된 NGO와 함께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조직을 구축 	위령 및 참사에 대한 기억의 유지, 진상규명, 공동체회복
9.11 테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납치 등 동시다발 테러로 뉴욕 및 워싱턴에서 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단위의 지원책 • 커뮤니티 포럼의 개최 • 그라운드 제로의 회복과 재건 • 학교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 • 다양한 형태의 모임과 예술 활동 •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제안 	
힐스보로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힐스보로 경기장에서 관중 96명이 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비 건설 • 리버풀 감독의 위로와 슬픔 공유 • 희생자를 기념한 유니폼 마크 • 리버풀팬들의 지지와 응원 •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과 승소 	보이지 않는 유대감·호혜·협력·지지 등 ↓ 지역기반접근
동일본지진 오카와초등학교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본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로 108명 중 74명, 교사 13명 중 1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소송에서의 승소 • 천사 모양의 상과 위령비 설치 • 종교적 수양과 교육 • 유가족 사이의 연대 • 실종자의 수색 • 공동체의식 함양 및 마쓰리 재개 	

출처: 연구자 작성.

마지막으로 일본의 동일본 지진 시 발생했던 오카와초등학교 참사와 그 회복의 과정을 들 수 있다. 2011년 3월 11일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가 물러오기 전 50여 분이라는 대피 시간이 있었고, 학교 옆에는 피난할 만한 산도 있었으며, 심지어 산으로 가자고 먼저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전교생 108명 중 74명, 교사 13명 중 1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건이다. 일본판 세월호 참사로 통하고 있는 이 사건은 평소 매뉴얼과 상명하복에 길들여진 시스템이 돌발적이고, 복잡한 상황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사건 직후 진상규명을 위한 움직임에 방해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2012년 문부과학성의 중재 아래 ‘오카와초등학교 사고 감정위원회’의 최종보고서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유족들은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최근 미야기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다양한 치유의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족들 스스로 죽은 아이들의 위령을 위해 부흥위원회를 결성해 오카와초등학교 운동장에 천사상과 위령비를 설치하는가 하면, 종교를 바탕으로 수양과 각종 교육을 받기도 하고, 유가족끼리 모임을 갖거나 행방불명된 아이들에 대한 수색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강력한 공동체 의식은 사고 당시뿐만 아니라, 재건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끈끈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정신 함양과 더불어 마을의 연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마쓰리(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곳의 마쓰리는 단순히 즐기는 무엇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하고, 함께 극복해 나아간다는 깊은 의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업인 것이다(시사저널, 2016; 시사저널e, 2016).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겨내기 쉽지 않은 충격, 공포, 두려움, 슬픔, 좌절 등의 감정 앞에서 일상으로의 회복 혹은 치유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연상되지 않는 무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온전함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몇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한다. 상기의 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행태는 누군가를 돌보고, 지지한다는 사실이며, 이는 가장 선두로

발견되는 치유의 행태이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한 행동양식은 사실 상호의존, 호혜, 협력, 지지 등 다차원적인 개념을 아우르는 결과이며,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 최소한 둘 이상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고, (2) 그 네트워크는 신체적이며, 감정적인, 그리고 그 이상의 실질적인 것—예를 들어, 영적인—을 포함하게 되며, 수시로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된다. (3) 또한 확장된 호혜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4) 새로운 관점, 자부심, 만족감, 새로운 기술의 습득, 소명의식의 발달, 내면의 힘, 죄책감의 경감 등과 같은 트라우마 치유에 있어 주요한 점들로 가지적이든, 비가지적이든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Miligan and Wiles, 2010, 738). 이러한 특성들이 코소보사태, 미국의 9.11 테러, 힐스보로 참사, 동일본지진 오카와초등학교 참사 치유 과정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치유의 핵심 키워드인 공동체 회복, 진상규명, 위령 및 참사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승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동체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기반 지원 혹은 대응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 호혜, 협력, 지지 등이 회복탄력성 혹은 집단적 트라우마 회복의 전제조건이며, 한 지역이 갖고 있는 치유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발현될 수 있는지 지역 거처에 흐르는 공동된 기억과 경험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선두를 점할 때 치유는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에 형성된 치유의 공간의 존재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에 형성된 치유의 공간

세월호 참사 직후 안산시에는 <안산온마음센터>의 전신인 <경기도-안산시 통합재난심리지원단>을 시작으로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

의 치유의 공간이 나타나기 시작해 현재는 7개 내외의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치유의 공간이 안산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유는 세월호 참사의 주요 희생자가 주로 안산시 단원구 소재의 단원고등학교에서 발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산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안산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 계획도시로서 근대화 노하우가 구현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안산의 인구증가율은 1,000%-에 초 계획했던 인구 20만 명이 현재는 70만 명이 넘어서는 수준으로-가 넘었고, 반월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생산과 고용 비율 증가율은 3,000%에 달하고 있으며, 수출 증가율도 10,00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노동 문제, 이주노동자 문제, 소득불균등 문제 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독특한 특징까지 중첩된 지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적인 도시와 달리 안산시 안에는 사회운동과 관련된 이슈들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내용, 경로 등에 대한 지역사회운동의 영향력은 여타 지역에 비해 뚜렷했다고 할 수 있다(오경석 외, 2008, 318-320).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세월호 참사 후 나타난 치유의 공간의 등장은 지역사회에 대두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화가 이미 형성되어 있던 안산시에서 어쩌면 당연한 과정이었는지 모른다. 치유의 공간이라 명할 수 있는 단체명은 <안산온마을센터>, <힐링센터 0416>, <안산생명센터>, <치유공간 이웃>, <우리함께>, <소금버스(꼬두물정류장)>, <섬표> 등이며, 이에 대한 분포는 그림 3처럼 나타낼 수 있다(그림 3 참조). 물론, 이외에 명칭과 주소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단체, 예를 들어, <고잔 1동 공동체 주인모임>, <노란물결합창단> 등도 존재하고 있고, 안산시 내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파견된 형태로 청소년 멘토링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름다운 배움>과 같은 단체도 있으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 및 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억저장소>도 넓은 의미에서는 치유의 공간이라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개별 단체의 성격은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몇 가지 공통성이 발견된다(표 3 참조).

첫째, 민간이 중심이 된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지원 형태의 <안산온마을센터>, 종교단체지원 형태인 <힐링센터 0416 섬과 힘>과 <안산생명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민간에서 스스로 제안하고, 참여하고, 운영하는 형태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비공식 치유의 공간까지 포함한다면 민간에서 주도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성격상 이미 공공에 대한 불신이 만연했던 상황에서 정부지원 형태 보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형태가 유가족 및 피해자에게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웠던 점을 고려한다면 세월호 참사 치유의 공간에서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초동대처에 있어서 죽음의 목전에서 돌아온, 혹은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극도로 민간해진 집단이 치유의 주요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리적 상태에 집중하기보다는 특정한 프로그램, 권위 있는 전문가에게 의존한 분위기도 민간을 더 선호하게 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희생자 형제자매 혹은 생존자를 주로 지원하는 치유의 공간에서 종종 언급된 내용이었는데, 참사 초기에 주요 치유의 대상이었던 청소년 집단 혹은 미성년들이 원했던 것은 그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누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누군가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제안, 자신의 트라우마를 일면식도 없는 제3자가 규정하는 태도, 혹은 자신을 치유를 해야만 하는 환자로 보는 강압적인 시선 등이 강해 이에 대한 심한 거부감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이 주도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그 중심이 옮겨지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민간 중심의 치유의 공간은 특별한 프로그램은 배제한 채 당사자들이 원하면 당장 그만두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 방향, 속도로 움직여 줄 수 있는 장점을 충분히 고려해 치유의 공간을 마련했고,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도 공간의 주인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이다. 국가책임의 사고에 대해 민간이 중심이 되어 치유의 과정을 지원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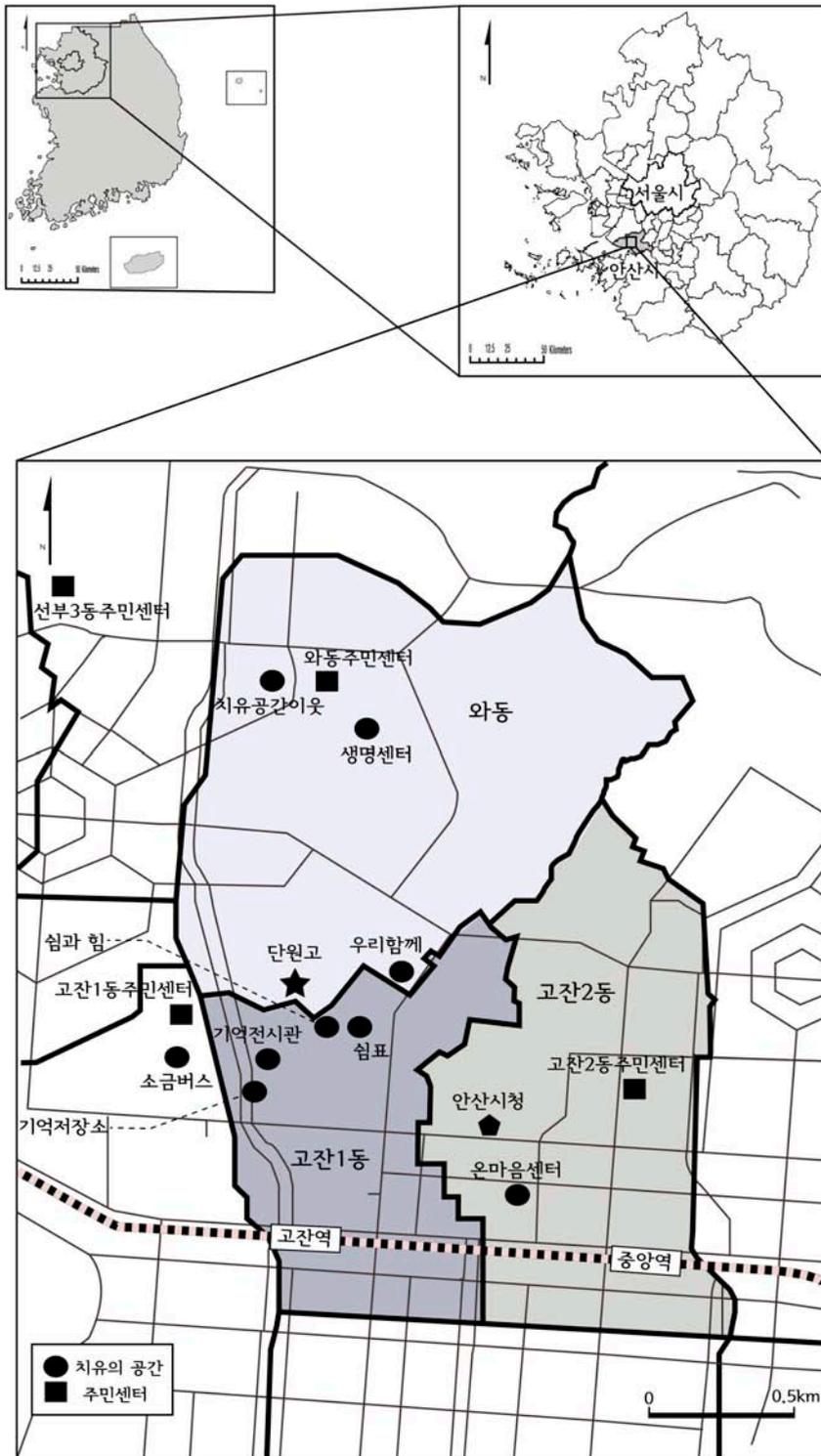


그림 3. 안산시의 세월호 참사 후 나타난 치유의 공간 분포도

출처: 연구자 작성.

표 3. 안산시 고잔동과 외동을 중심으로 나타난 치유의 공간

단체이름	운영형태 및 핵심지원단체	개소 년도	주요대상	주요활동
안산온마음센터	-정부지원	2014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및 피해자 지원	-심리적 상담 도모를 위한 상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힐링센터0416 심과힘	-민간지원 -기독교단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및 피해자 지원 -지역공동체	-심리, 정신, 신체, 영적 치료 등 -지역내·외의 단체와 유대
안산생명센터	-민간지원 -천주교단체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 지원 -지역공동체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개인상담, 공개강좌 및 특강, 영화관람, 마을대화 모임과 문화제 등도 개최
치유공간이웃	-민간지원 -아름다운재단 및 개인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지원(특히, 어머니 중심)	-치유밥상이 핵심 -뜨개질, 마사지, 한방치료, 간담회, 개별상담, 생일모임
우리함께	-민간지원 -안산시 내 복지관 네트워크		-세월호 참사 희생자 형제자매 지원	-특별한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단 학습멘토링 운영 -같이 식사하는 모임 지속
소금버스 (꼬두물정류장)	-민간지원 -삼선배움과나눔재단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지역주민 지원	-식사를 같이 준비하고, 나누는 모임(콜라주밥상) -목공교실, 구슬생애자, 청소년뮤지컬, 옷상터밭, 서클대화모임, 학습멘토링
심표	-민간지원 -광주시민상주모임(차기 다른 지원단체 예정)	2015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지역 청소년 지원	-특별한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으며, 단 학습멘토링 운영 -학생 혹은 외부단체와의 연계를 해서 여행과 같은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진행

출처: 연구자 작성.

있는 사실이 모순되기는 하지만, 치유 대상자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민간 중심의 치유의 공간-비록,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치유의 공간은 세월호 참사의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된 단원고등학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그림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연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입장을 배려한 입지 선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녀 혹은 형제자매가 다녔던 학교를 지켜보면서 치유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데 장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를 피해 치유의 공간을 위치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 중 어머니

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치유공간 이웃>은 특히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단원고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단원고에서 버스로 10분 이상 걸리는-에 단체의 입지를 결정했다. 희생자의 어머니들에게는 아이를 잃은 슬픔도 크지만, 남아있는 가족, 특히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위해 조속한 일상으로의 회복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무심코 한번 지은 미소나 타인과 나뉘던 소소한 대화가 다른 이웃 주민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주거 지역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자신의 슬픔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착안, 현재의 자리에 <치유공간 이웃>을 위치시킨 것이다. 이외에 세월호 참사 직후에 단원고등학교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센 여론이나, 단원고등학교의 관계자들이 법적대응이나 사고해결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 이에 대한 거부감의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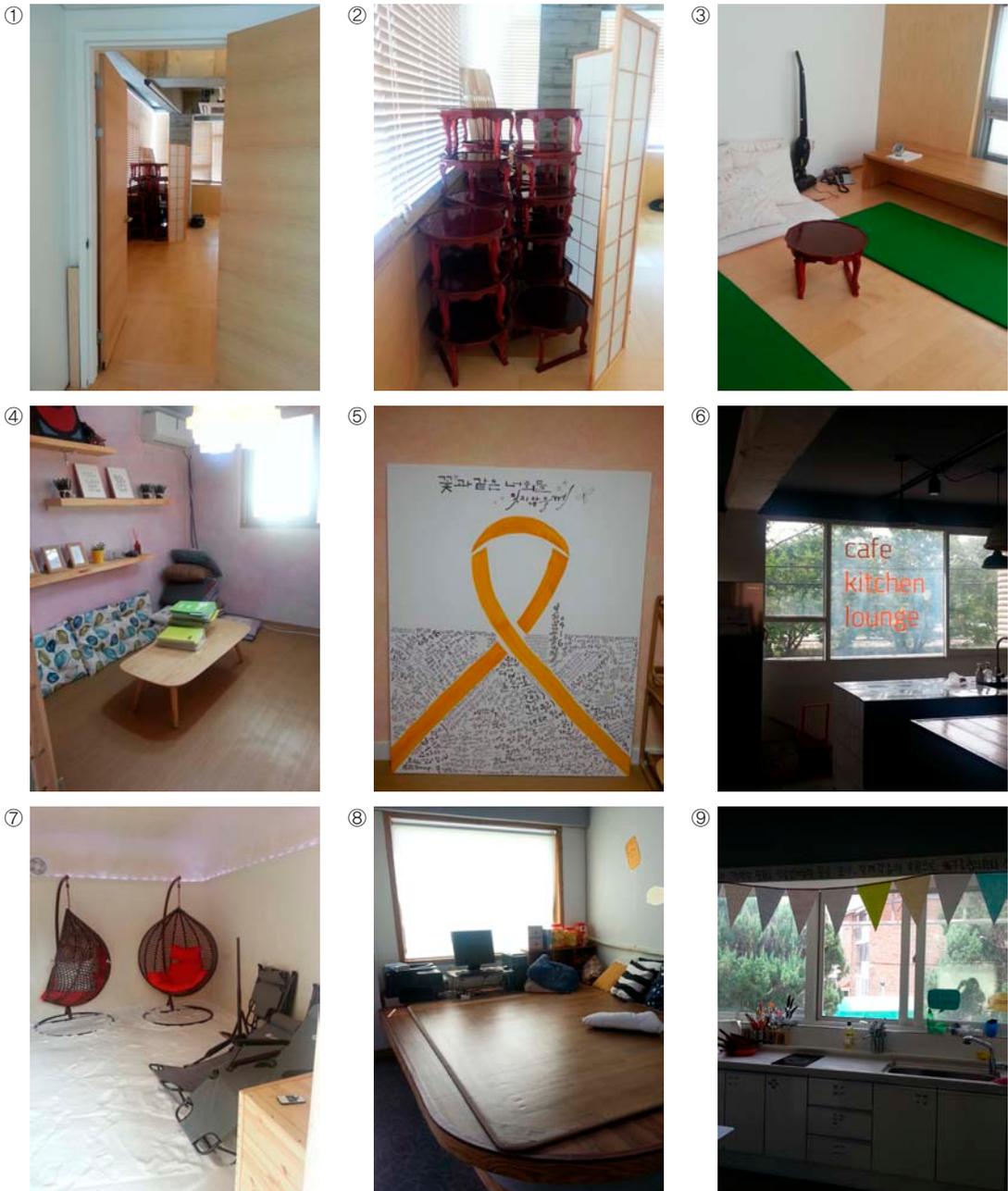


그림 4.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의 내부 전경

출처: 연구자 촬영(2016)

주: ① 치유공간 이웃의 상담실의 이중문(상담 내용 혹은 희생자 가족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이중으로 문을 제작)
 ② 치유공간 이웃의 핵심인 식사를 위한 개인밥상(이효재 디자이너가 개인밥상을 지원했으며, 오직 한사람만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이라는 의미를 담음) ③ 치유공간 이웃의 상담실 내부 ④ 우리함께의 내부(희생자 형제자매가 편안하게 쉬거나, 밥을 먹거나, 학습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방으로 꾸몄으며, 장식품, 벽지 등도 모두 희생자 형제자매의 결정하도록 하였음) ⑤ 우리함께의 내부에 걸려있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그림 ⑥ 소금버스의 중심을 이루는 부엌과 유리창의 모습(마치 카페가 연상되는 모습에 가끔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위한 공간인지 모르고 방문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함) ⑦ 소금버스 내부에 설치된 소금방(스트레스 해소 목적) ⑧ 쉼표의 내부(세월호 참사 생존학생과 현 단원과 재학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몄음) ⑨ 쉼표의 조리실(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할애했).

폭도 단원고등학교가 시선에서 벗어나 있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곳을 선택하게 한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¹⁾

셋째, 주요한 치유의 프로그램이 특별한 내용 대신 지극히 일상적인 행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접근방식과 다른 대안적 형태이다. 세월호 참사 직후 여러 기관에서 유가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히려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일종의 피로감을 강하게 호소했었다고 한다. 더구나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 광화문 혹은 정부청사 등 원인규명과 조속한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해 서명서를 받거나 거리에서 시위를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신체적, 정신적인 아픔과 충격을 돌볼 틈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프로그램을 통한 트라우마 치유와 이와 관련된 활동은 효과도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되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일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유가족들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삼시세끼를 챙겨먹는 일부터 시작했었고,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집중했던 것이다. 아이에 대한 생각과 죄책감 등의 잡념을 일시적이나마 없앨 수 있는 뜨개질, 진상규명과 시위로 자주 곁에 있어 주지 못하는 부모를 대신해 유가족 형제자매를 돌볼 수 있는 학습멘토링, 진학을 하지 않거나 포기한 생존자 학생들을 위한 목공일 지원 등이 바로 일상성 회복의 예라 할 수 있다.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소소한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얼굴을 맞대고 진솔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도록, 심지어 잠을 자거나 누구의 방해도 없이 그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금버스(꼬두물정류장)>에서는 소금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금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 일부 생존자 학생들은 특별한 활동도 하지 않고 그저 소금방에서 잠을 자거나, 음악을 듣고 다시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처럼 민간 중심의, 단원고등학교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특정한 프로그램을 배제한 곳이 세월호 참사 후 안산시에

등장한 치유의 공간의 공통된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치유의 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요한 지리적 함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는 장소로서의 인식, 네트워크 구축, 치유의 문화 창출 등의 내용을 고찰해 봄으로써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치유의 공간에서의 주요 현상

1) 공간이라 부르는 장소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치유의 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요한 지리적 현상으로 먼저 장소화되는-치유의 공간이 주요 이용자들에게 그들만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안적 치유의 공간 시작은 제3자에 의해 제안된 형태로 처음에는 한번쯤 둘러봄직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없지 않았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용자에게 의해 운영, 활용, 관리되어오면서 그들의 지속적 관심이 누적되어왔고, 누적된 관심은 애정으로, 애정은 독특한 문화로, 문화는 그들만의 역사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민간 중심의 대안적 치유의 공간에 대한 나름의 명성, 평판, 이름 등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식되어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특성상 감정적 동요가 일어날 경우에 개별 치유의 공간은 표적 집단에게 적절한 안식과 위로를 부여하는 곳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 이는 <우리함께>와 <치유공간 이웃>의 사례에서 각각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함께>는 지역사회 복지관 소속 복지사들이 모여 희생자 유가족, 특히 형제자매 돌봄에 대한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나타난 치유의 공간이다. 여타의 그것이 그러하듯이 <우리함께>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대상을 염두하고, 철저히 그들이 원하는 방향과 내용을 검토해 공간을 조성했다. 단원고등학교와

가까이 있되 시선에서 벗어난, 그렇지만 대다수의 희생자 형제자매들이 통학하는 범위 내에서의, 무엇보다 또래만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존중하자는 원칙이 깔려있으며, 이는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어 트라우마 치유의 첫 걸음인 당사자 중심성의 회복과 연관성을 갖는다.

“...트라우마 치유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당사자 중심성의 회복입니다. 당사자가 욕구를 갖고 요구하고, 기획하고, 운영하는 등의 사회복지적인 실천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게 돕는 것이죠...(중략)...이러한 원칙이 우리함께를 운영하는데 모두 적용되고 있어요.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에는 아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죠...(중략)...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데리고 와서 도배는 무엇으로 하고 싶은지, 색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전등갓 테마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직접 꾸몄죠. 그렇게 해서 직접 자신들이 만든 곳으로 자리를 잡았고, 울고 싶을 때, 웃고 싶을 때, 친구들과 모임하고 싶을 때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중략)...여기의 상주봉사자들은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들어줄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까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할 것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안할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의 역할은 그저 아이들이 한걸음 더 나아갈 때 디딤돌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2016년 7월, 우리함께 사무국장 인터뷰 중)

왜 당사자 중심성의 회복에 왜 주목하는가? 사실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의 희생자 형제자매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학교에서든, 지역공동체에서든 특별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받았던 경험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직후 너무나 과도하게 쏠린 관심은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다잡고 일어서서 일상을 돌아가는데 장애물로 작용

했었다고 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면식도 없는 전문가가 자신을 따라오면 다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고압적 태도나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것에 반응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에 대한 무시 같은 경험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는 일이 발생했었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자신의 혈육이 갑작스럽게 떠난 상황과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부모의 돌봄 없이 혼자 공부하고, 혼자 생활을 한동안 책임져야했던-에서 자신의 주도와 결정 없이 누군가에게 떠밀려가듯 끌려가는 상황은 이들을 더 어렵게 했었고,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스스로의 욕구에 대한 표출, 선택의 자율, 누군가의 온전한 집중 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원했던 상황에서 응답을 해준 대상이 바로 민간 주도의 대안적 치유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함께>는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에도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단, 아이들이 원하는 것, 예를 들어,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중에서도 물놀이를 가고 싶고, 캠프를 가고 싶은 욕구를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학습멘토링을 통해서 학교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는 정도의 지원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희생자 형제자매 혹은 그들의 친구들이 편안하게 와서 식사를 하거나,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수다를 떨거나, 상주봉사자와 면담을 하거나, 혹은 그저 낮잠을 자고 가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겉에서 보면 <우리함께>에서 하는 일이 특별할 것도 없는, 무원칙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자신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방식으로 지지를 해준 그들만의 공간은 이미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집 이외의 제3의 장소로서 그 중요성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인터뷰에 의하면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희생자 형제자매의 경우에 군입대, 타지역의 학교 진학 등으로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에도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우리함께>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하는 속내를 상주봉사자에게 종종 털어놓는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에서 인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치유의 공간이만

큼 경영상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이를 어떻게 알게 된 이용자들이 세월호 참사 후 자신들이 출판한 책의 강연회에서 받은 비용을 단체 후원금으로 내겠다고 한 일화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미뤄 짐작해보면 민간 주도의 대안적 치유의 공간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혹은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이곳이 얼마나 각별한 곳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민간 주도의 대안적 치유의 공간의 명성, 평판, 이름 등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식되어 있는 현상은 <치유공간 이웃>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치유공간 이웃>은 트라우마에 있어 다년간 활동한 정신상담 전문의로 널리 알려진 정혜신 박사에 의해 제안되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곳의 핵심은 희생자 유가족 어머니들, 상주봉사자들을 포함한 봉사자들, 성직자, 후원자 등의 활동에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적이면서, 사소한 행동이 <치유공간 이웃>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핵심적인 치유의 근간으로 작용한다. <치유공간 이웃>은 본래 세월호 참사 이후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희생자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단체이며, 이러한 성격을 반영해 부엌을 공간의 중심에 두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사와 관련된 일련의 모든 행동이 치유와 연결된다. 예를 들어, 오늘 이 반찬을 누가 만들어 주었으며, 누가 이 식재료를 보내주었는지, 봉사자들의 근황과 최근에 누가 후원을 해줬는지 등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쳤을법한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눔으로써 여기에 모인 혹은 모였던 모두가 하나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아직까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들이 존재함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긴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고, 처음과 달리 커져가는 사회적 무관심 혹은 유가족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등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누군가는 아직도 그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치유에 있어 중요한 과정이 된다.

여기에 더해 마음껏 감정을 드러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안정과 허용, 향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

비가 되어 있는 존재의 상주, 마음 속 깊은 곳의 이야기에 공감해 준다는 믿음과 소통,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있다는 보이지 않는 공감대 등이 주요한 치유의 힘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대부분 단원고등학교 근처의 오래된 빌라촌에 거주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거의 특성상 작은 소음도 크게 들려 감정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또한 자식이 먼저 간 슬픔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감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주민의 수근거림이나 불편한 시선 등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치유공간 이웃>에서는 철저히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이중문이 달린 방을 제공하며, 단원고등학교와 멀리 떨어진 와동에 공간을 위치시켜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조성했으며, 상주봉사자뿐만 아니라 가끔 밥을 해주기 위해 들리는 봉사자 혹은 성직자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어머니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 후 희생자 유가족 어머니들이 느꼈던 감정 중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드러내고 싶어도 오히려 주위의 반응이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다는 점이었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자유롭게 발산될 수 있다. 오가는 사람과 생전에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치유공간 이웃>에 걸려 있는 그림에 표현된 하나하나의 상징성에서 아이의 모습을 찾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은 희생된 아이의 생일모임에서 정점에 이른다. 이 생일모임은 가족, 친척, 아이들의 친구, 선생님, 동네주민 등이 함께 모여 지금은 함께 할 수 없는 아이를 기억하고, 생전에 아이와 함께 했던 추억을 나누며, 생일모임을 준비하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토대로 <치유공간 이웃>의 봉사자인 시인들이 직접 쓴 시낭송을 함으로써 비록 지금은 아이가 곁에 없지만 영원히 함께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게 되는 과정이다.

단순히 밥을 같이 먹고, 감정이 벅차올 때 가서 울

고, 아이가 살아있을 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 아쉬움과 그들에 대한 기억을 쏟아내는 등의 일들은 특별할 것도 없는 그렇다고 익숙하지도 않았던 접근이었지만, 약물 치료나 개별 상담 등의 통상적인 트라우마 치료에서 벗어난 치유 과정은 어머니들 사이에서 길지 않은 시간에 회자가 되었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미 주요 이용자들에게 있어 ‘치유공간 이웃=그들만의 위로처’라는 상징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아이에 대한 기억을 잠시나마 내려놓도록 하기 위한 뜨개질 교실에서 3년 동안 재료비-여기에서는 약값이라 통용되는-로만 5,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사실만 보더라도 치유 대상 사이에서 이 공간의 심리적 자리매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간이 존재하는 중요성은 위기가 찾아올 때 발견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문제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거나, 위기의 순간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때 어머니들이 서로 모여 이야기를 공유하고, 위로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는데, 바로 이 중심에 <치유공간 이웃>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저희 같은 곳이 없다면 참 좋잖아요? 일상이 다시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겉으로 봤을 때 세월호 참사의 국면이 어느 정도 진정된 것처럼 보이는 하죠. 하지만 안의 상황

은 좀 달라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다시 불안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머니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오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가장 좋은 곳이고, 들어주는 혹은 지지해주는 누군가도 항상 존재하고 있고, 사람들 시선 같은 것 신경 안 쓰고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문제들이 끝날 때까지 치유공간 이웃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7월, 치유공간 이웃 상주봉사자)

이상과 같이 치유의 공간이 누적된 시간 속에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무엇이 되거나, 그곳에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부여받는 현상은 미국의 정신건강 전문가로 저명한 Sternberg(2009)의 견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또는 제공하든, 제공받는 치유와 관련된 지리적 범위에서 핵심적인 원천적 힘은 플라시보 효과에 있음을 밝힌 바 있다(Sternberg, 2009). 다시 말해, 특정한 지리적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치유를 받고 있다’라는 암묵적 메시지를 이미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혹은 활동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형상, 자신을 둘러싼 소리, 색깔, 냄새, 공기(분위기), 이미지, 역사 등을 통해 느끼게 된다. 또한 이용자들은 누적된 치유의 결과를 통해 스스로가 나아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반복된 결과로 한층 더 강해진 신념을 갖게 된 이용자들은 마치 확산자처럼 새롭게 올 누군가에게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신뢰와 믿음을 전파하

표 4. 공간이라 부르는 장소적 특징의 핵심 요소

예시	핵심 활동	기본 개념	숨은 요소	결과
우리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꾸미기 특별한 프로그램의 부재 최소한의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중심성에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으로 치유의 공간이 존속하길 바라는 바람과 애정: 지속적 애착 명성, 평판, 이름 등으로 인식: 플라시보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화 혹은 그들만의 전유물로 인식
치유공간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사하기 자신의 감정 드러내기 뜨개질 먼저 간 아이의 생일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지, 응원, 연결됨 안정, 허용, 들어주는 등의 상주, 믿음, 소통, 공감대 		

출처: 연구자 작성.



그림 5. 치유공간 이웃의 벽면을 채우고 있는 작품과 부엌을 중심으로 하는 전경
출처: 연구자 촬영(2016), 치유공간 이웃 홈페이지(이웃.kr)

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함께>와 <치유공간 이웃>, 더 넓게는 안산시에 분포한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의 치유의 핵심 요소와 존재의 이유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2) 다층적인 구조와 네트워크의 구축

세월호 참사 후 안산시에 나타난 민간 중심 대안적 치유의 공간의 두 번째 특징으로 다층적인 구조와 네트워크 구축을 들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의 초기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내지 상처를 하나의 것으로 간주하고 접근했던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치유 대상의 개인적인 혹은 소수 집단적인 특성은 매우 상이했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민간 중심의 대안적 치유의 공간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크게 희생자 유가족 어머니 중심, 희생자 유가족 형제자매 중심, 생존자 및 재학생 중심, 생존자 및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구분하여 현재는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안산의 세월호 참사는 조금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한 지역, 특정한 학교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오게 되었고, 다양한 피해자 그룹이 형성된 것이죠. 겉으로는 모두 같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개별(피해자) 그룹의 성격이 다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더욱더 개개인이 느끼는 무게나, 어려움은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선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같은 곳에서 치유를 해라라는 말도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2016년 8월, 심포 교육팀장)

인터뷰에서 드러난 것처럼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분명한 입장 차이가 분절된 형태인 치유의 공간들 기초로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 것이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 탈출해서 겨우 생존한 아이들, 그들을 둘러싼 부모가 느끼는 감정, 형제자매가 바라보는 시선, 지역공동체가 생각하는 관점까지 어느 하나 중첩되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처음에 희생자 부모와 생존자(혹은 그들의 부모)가 입장을 같이한 시기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갈등은 입장을 차를 만들게 되었다. 또한 부모는 스스로도 서 있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지를 해주거나, 응원을 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했고, 희생자 유가족 형제자매들은 아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억누르면서 학업과 생활을 병행해야만 했었다. 70여명에 달하는 생존자들도 서로 반이 달랐고, 어울리는 그룹이 달랐으며, 트라우마의 극복 정도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

문에 집단적 접근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돌봄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요구를 받거나, 트라우마 치료를 강요받아야만 하는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대상으로 지역공동체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이 호소하는 일종의 피로감에 대한 해방구 모색도 당시는 매우 절실했었다. 사실 처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주체는 이웃에 살며 늘 가까이 얼굴을 마주하던 주민이었고, 지역공동체였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수습이 점점 장기화됨에 따라 오해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지역 차원의 갈등해소를 위한 대안이 필요했다.

“...그래서 가끔 노인정에 가서 막걸리도 마시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해요. 가끔 이야기를 듣는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동네주민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그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구술생애사(지역주민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 프로젝트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면 그분들의 가치관, 생각, 사고방식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도했어요. 지역주민들도 다 부모고, 이웃인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청소년들이 인터뷰를 하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이해하는 거죠. 그분들도 어쩌면 2차 피해자라고 볼 수 있어요. 지역주민들에 대한 위로나 이해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단체는 지역을 이해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른이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마음이 열린 친구인 것 같아요...” (2016년 8월, 소금버스(꼬두물정류장) 대표)

이러한 민간단체에서는 여타의 기관과 차별적으로 이런 내부적인 사정에 지속적인 관심에 귀 기울여 개 개인이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게 되었고, 개별적인 특성을 담은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그러

나 분절된 형태 혹은 다층적인 구조를 누군가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황을 읽어가며, 가능한 동일한 부분이 없도록 고려한 배려의 결과이다. 특징적인 점은 치유의 공간이 개별적이기는 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특정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지만, 캠프, 물놀이 등과 같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 일시적인 행사를 위해서 혹은 학습멘토링과 같은 표적 집단에게 꼭 필요한 일상의 회복과 관련된 일에는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저희가 처음에 가족카드(사회복지에서 가족의 상황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 작성할 때도 초기에 안산시민대책위하고 같이 연대해서 들어가서 활동했었고, 아이들 캠프를 할 때도 온마을센터하고, 저희하고, 학교하고 같이 청소년을 위한 연대를 만들자하는 화두를 던졌었고. 지금은 그것이 청소년문화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변경해서 지속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와 비슷한 단체와 월정기회의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러한 활동들에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내가 보는 모습과 상태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각 단위가 서로 정보 공유하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이 다는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치유와 관련된 모든 단체가 모여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런 서비스들이 중첩되지 않게끔 하고, 서로의 정체성에 있어 겹치지 않게끔 하는 거죠. 국조위 보고서에도 보면 저희 안산시 안에서 이뤄졌던 일은 거의 중복이 되는 않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서로가 되게 균형감을 잘 맞춰온 거죠...” (2016년 7월, 우리함께 사무국장 인터뷰 중)

치유의 공간의 공동적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몇 가지 이유와 연결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효율적인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특정 가족, 집단, 개인에 대한 다면적인 이해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은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차마 티놓고 말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직까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들의 부재로 인해 남아 있는 가족이 안고 있는 심적인 부담감은 가족이어도 쉽게 꺼낼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나이, 성별 등에 따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별 가족, 집단, 개인의 문제점을 각 치유의 공간 상주봉사자 혹은 담당자들이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해한 후, 이를 모든 기관이 함께 하는 모임 속에서 나누면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로 앞으로 공동체가 풀어나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는 현 상황을 들 수 있다. 아직까지 매듭짓지 못한 세월호 인양, 특조위의 활동 중단, 더 나아가 세월호 참사 관련 추모 행사, 세월호 참사 추모 공원 건립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점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민이 쌓일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체계가 잡혀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공동체적인 대응에 있어 중심축의 역할을 치유의 공간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유의 공간 네트워크의 형성은 상주봉사자 혹은 담당자 사이에서의 연대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치유의 공간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바로 상주봉사자 혹은 담당자들이 겪는 일에 대한 어려움, 치유의 공간 경영 문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를 보면서 느끼는 간접 트라우마 등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통해 서로의 사정을 공유할 수도 있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기도 하며, 무엇보다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저마다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온마음센

터에서는 초기에 많이 대응을 했고...(중략)...어려움에 대해서 우리함께나 심포 등과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같이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소하기도 해요...” (2016년 8월, 소금버스(꼬두물정류장) 대표)

“...봉사자들도 너무 많이 지쳤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대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간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이죠...(중략)...한국사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안 일어나리라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봉사자를 돕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었으면 이런 일도 필요없겠죠...(중략)...민간영역이 늘어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사회에 진지하게 책임지는 문화가 있다면 민간영역이 앞으로 나설 필요가 없겠죠. 영국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지역사회의 소방서, 복지기관, 학교 등이 연대를 해서 지역사회와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그것을 지원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으니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2016년 7월, 우리함께 사무국장 인터뷰 중)

Kennard(1983)는 집단적 트라우마와 같은 정신적 측면의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 방안으로 치유의 커뮤니티(therapeutic community)라는 것-지역 기반 네트워크의 개념에서-을 언급한 바 있는데(De Leon,

표 5. 다층적인 네트워크 형성 특징의 핵심 요소

예시	핵심 활동	기본 개념	숨은 요소	결과
전체	• 표적 집단의 개별적인 지원	• 개별성에 기초하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치유의 커뮤니티 형성 필요성	• 시선 혹은 입장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접근	• 다층적인 네트워크의 형성
	• 캠프, 물놀이 등 일시적 행사 • 학습멘토링 정도의 일상적 부분 지원		• 다면적 이해 • 공동대처를 필요로 하는 문제점 • 봉사자들이 연대성	

출처: 연구자 작성.



그림 6. 생존자와 단원고등학교 재학생을 위한 심포 내부
출처: 연구자 촬영(2016)

2000, 13), 이는 이미 세월호 참사 후 안산시에 나타난 민간 중심의 대안적 치유의 공간의 네트워크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한 행정업무 이상을 지원하고, 개별 치유의 조직이 유기적이면서도 민주적인 환경을 근간으로 한다는 치유의 커뮤니티의 기본적인 조건이 안산시 사례와 일치한다 할 수 있다. 특히, 공동체적 대응 방안에서 무엇보다 중요시되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에서부터 지역주민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인 피해자들을 아우르며 그들이 원하는 방법과 대책을 공간적으로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고, 정기적인 모임과 긴밀한 네트워크 활동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을 다면적으로 이해하며, 공동대처를 필요로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봉사자들의 연대성을 고취시키는 점 등이 바로 구체화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인터뷰의 결과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치유의 커뮤니티 조직에 있어 공공의 접근과 지원이 절실하며, 제3자의 개입이 아니라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풍토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민간에서부터 자생하고 있는 안산시의 치유의 공간은 비록 상위에서 언급한 매뉴얼에 기초하거나, 전문적인 자료에 따라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공동체가 필요

한 것이 무엇이며, 온전한 치유를 향한 방향성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체득된 경험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체계화한 사례인 것이다.

3) 기억하는 이와 이어받는 이를 함께 아우르는 치유의 문화를 형성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에 나타난 치유의 공간과 관련된 마지막 지리적 특징은 치유의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치유의 문화 형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안산시 지역 내와 지역 외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먼저, 안산시 내에서의 지역문화 형성은 앞서 다뤘던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운영하는 공동체 성격의 연장선에서 설명할 수 있다. 다층적인 구조와 네트워크의 구축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힘을 보태주고, 목소리를 내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추모공원의 조성, 기념행사의 진행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가 요구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가족과 지역주민 사이의 호혜적 관계 지속의 어려움, 반복되는 세월호 참사 언급에 대한 일종의 피로감,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다루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의견의 대립 등으로 지역공동체의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

해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 혹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운 곳에서 상호이해하지 못하는 공감대의 부재, 서로를 보듬지 못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치유의 문화 형성이 절실하다.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앞장서 도움을 주었던 이들은 다름 아닌 지역의 주민들이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위한 음식 지원, 치유의 공간 조성 시 초기의 도움 등이 지역주민들의 손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의 구성원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가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문화의 형성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를 위해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지속하고자 놀이터 음악회와 같은 공연, 크고 작은 강연, 전시, 교육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실제로 단원고를 중심으로 하는 안산시 길거리 곳곳에서 지역축제와 같은 홍보 포스터도 확인할 수 있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자는 취지의 문구와 그림은 눈에 쉽게 발견된다. 단, 그 내용이 무겁거나, 어두운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것이며, 정체된 것이 아닌 발전적인 방향을 지향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유가족 형제자매 아이들이 상처받는 말들은 사실 일베가 게시하는 글은 아니에요. 오히려 친한 친구들이나 잘 알던 사람들이 ‘너무 오래 우는 것 아니야?’, ‘보상금 충분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말에 더 깊이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중략)...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무관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처음 우리함께를 기획할 때 부동산에 찾아갔었어요. 저희 목적은 말씀 안 드리고, 부동산 운영하시는 분이 단원고등학교 아이들을 항상 보시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 늘 보던 학생이 안 보이면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다보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그래요. 이 공간이 생기는 것이 다행이라고 그래서 부동산에서 매우 열심히 알아봐주셨어요...(중략)...어떤 지역주민들께서는 세월호 참사를 더 이상 언급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분들이 지역주민들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분들이 세월호 참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

고, 기억을 이어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016년 7월, 우리함께 사무국장 인터뷰 중)

또한 안산시의 도시재생도 중요한 이유로 들 수 있다. 급작스러운 성장과 인구의 밀집으로 인해 노후화된 안산시에서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재개발, 젠트리피이션 등과 같은 도시재생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안산시에 상당 기간 거주했던 지역주민들이 점점 떠나고 있지만, 이들이야말로 세월호 참사의 순간순간을 경험했으며, 기억하고 있고, 가장 큰 지지자인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현재의 지역주민들이 머무는 시간 안에 치유를 근간으로 하는 지역문화를 굳건하게 하는 일은 주요한 과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설령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에 형성된 고유한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역문화가 굳건하다면 그 체계나 틀이 크게 변화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월호 참사의 다양한 사회조직(social tissue)을 통합하고, 함께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작업은 긴 시간이 필요하며, 쉽지 않은 작업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화형성이, 더구나 시간의 지체 없이 현재에 한층 더 요구되는 이유는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독려할 때만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구성원이 사회로 온전히 돌아가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세월호 참사와 같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인재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만약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정당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에 대해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완화하고, 도와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사실에 대해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세울까 하는 고민을 더 하는 거죠...(중략)...슬픔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면 이 사회가 더욱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억울함, 슬픔에 대한 인정, 왜 억울한지 같이 찾아주는 사회, 그리고 그 억울함을 잊지 않게끔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그게 트라우마에 대한 회복이 가능한 사회가 아닐까 싶어요...(중략)...최근에 416안산시민연대를 창립했고, 여기에 70개 단체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장기적인 공동대응을 하고자 모였어요.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연대의 힘을 통해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서로의 이웃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분과가 따로 운영된다고 들어요..." (2016년 7월, 우리함께 사무국장 인터뷰 중)

"...공동체 회복이라는 미션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공간이 오래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나눔, 애기 등을 통해서 서로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중략)...저는 언젠가 떠날 테지만,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2016년 8월, 소금버스(꼬두물 정류장) 대표)

한편,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안산시에서부터 외부로 퍼져나가는 문화현상으로 <우리함께>에서 추진하는 '늦기 전에 안아주세요' 운동을 들 수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먼저 간 아이에게 살아생전 사랑하는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것인데,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지금 사랑해 주고, 표현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 캠페인이라 할 수 있다.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한 가부장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지만, 지금이 아니면 현재 이 시간의 자녀의 모습을 더 이상 기억할 수 없기에 장려되는 실천적 운동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생명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공감과 배려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의식이 대중적인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취지가 숨어있다고 할 수 있다.

"...아침에 집에서 나왔지만, 사실 저녁 때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을 안아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역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늦기 전에 안아주세요' 캠페인을 지난 2년여 동안 진행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에 아빠는 무서운 아빠였던 거죠. 아이들을 버릇없게 키우면 안 되니까, 또 과묵한 아빠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는데, 그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못해준 것이 미안한 거죠. 한 유가족 아버지께서는 어느 간담회를 가시든 사랑한다는 표현을 꼭 해주시라고, 자기도 요즘에 남겨진 아이들에게 아침에, 저녁에 사랑한다고 말해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서 문화로 정착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죠..." (2016년 7월, 우리함께 사무국장 인터뷰 중)

이외에도 특징적인 치유의 문화 형성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 마련 시 5.18 광주유가족들의 지원, 캘리그라피, 심리치료, 한방치료 등과 같은 초기에 대응했던 다양한 외부 조직들, 드러나지 않지만 숨어 있는 개인 및 단체의 후원금, 행사 참여 등의 활동, 안산시 내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팽목항, 광화문과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세월호 참사 추모 시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대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한 인터뷰 대상자는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형성되지 않았던 치유의 문화에 세월호 참사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예를 들어,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대구가스폭발 사고 등과 같은 참사가 발생했을 때까지만 해도 국민적인 추모와 애도의 문화는 형성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후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

원 사고, 강남역 여대생 살인사건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메모를 붙이거나, 피켓을 든다던가, 기억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으로의 실천은 이전과 분명 다른 양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부당한 일에 대해 다함께 모여 광장에서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는 일도 과거의 대한민국 정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중요한 변화이며, 세월호 참사 후 달라진 우리 사회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화의 형성이 열려있거나, 긍정적인 요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단원고와 같이 세월호 참사 이후 적극적으로 지 못한 대응 태도를 보여 오히려 배제된 곳도 존재하고 있으며, 지원을 가장한 배려 없는 외부인들의 개입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도 고민할 일이다.

이렇게 형성된 치유의 문화는 장기적인 고민과 비전을 지향한다. Echterling and Wylie(1999)의 연구 결과에서도 트라우마 치유에 있어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 제안을 했는데, 이를 감정적이면서도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의미의 창조적 기회로 해석하고 있다. 대부분의 참사는 공식적으로,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즉시적인 해법만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떠한 사건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는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은 만성적인 문제를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지원, 상담 등과 같은 체계는 지속적으로 존속해야만 한다. 또한 매해 개최하는 기념행사는 피해자들이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회상하면서 삶의 의미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

표 6. 치유의 문화 형성 특징의 핵심 요소

예시	핵심 활동	기본 개념	숨은 요소	결과
전체	• 지역축제, 공연, 강연 등: 지역 내	• 견고한 공동체 기반 치유의 문화 형성	• 사회로의 온전한 귀속 • 새로운 인재 발생의 예방 • 흔들리지 않는 지역기반 문화 형성	치유의 문화 형성
	• 캠페인, 우리나라 사회의 추모 분위기: 지역에서부터 출발	• 안산시를 시작으로 하는 치유의 문화 확산	• 생명존중 • 공감과 배려	

출처: 연구자 작성.



그림 7. 지역문화행사 포스터와 늦기 전에 안아주세요 운동 팸플릿

출처: 연구자 촬영(2016)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특정한 치유의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피해자를 위한' 것보다는 '피해자와 함께'하는 형태일 때 개인의 경험이 공동체의 의미를 공유하는 하나의 모자이크로 승화될 수 있고, 누적된 회복탄력성의 저장고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세월호 참사 후 치유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안산시 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특정 누군가가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동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인 지식에 기초한 문화 형성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에 나타난 대안적 치유의 공간의 지리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은 약 7개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간에서 주도하는 형태가 중심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다양한 피해자 집단이 발생한 만큼 개별 치유의 공간의 대상은 서로 겹치지 않는다. 또한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은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단원고등학교 주변에 위치시키되 시선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있으며, 소소한 일상을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일을 통해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지리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의 대상이 치유의 공간을 장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은 제3자에 의해 제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치유의 주체들이 스스로 끌어가고, 기억하며, 더 나아가 향후의 방향까지 결정하고 있어 일종의 그들만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세월호 참사는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희생자를 둘러싼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마을주민 등까지 넓은 범위의 집단에게 트라우마가 나타난 사건이었던 만큼 치유의 대상이 광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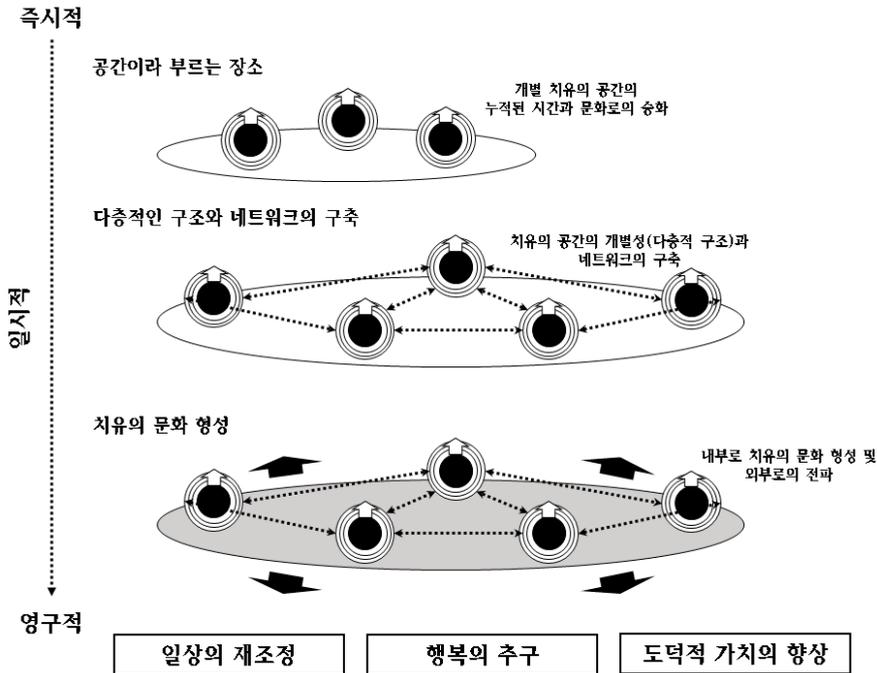


그림 8.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에 대한 본 연구의 개념도

출처: 연구자 작성.

하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들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그룹 혹은 개별적으로 필요한 치유 양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치유의 공간에서 주로 대상으로 삼는 집단은 겹치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에서 안고 있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별 치유의 공간 사이에서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상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셋째, 참사와 같은 트라우마 극복에 있어 사건의 지속적인 기억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되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피로감 혹은 갈등, 노후화된 안산시를 떠나는 이들, 시간이 지나감에 따른 퇴색되는 분위기 등으로 인해 기억의 유지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회복, 다양한 이벤트 기획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안산시 외의 다른 단체와도 협력해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장시간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아본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의 핵심적인 요소 기저에 깔려 있는 바는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우선, 일상의 재조정(adjustment of everyday life)을 들 수 있다. 이미 사용자들에게 장소로 기억되는 치유의 공간에서 핵심적인 활동은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소소한 것이거나, 일상적인 것도 자유롭게 누릴 수 없는 유가족과 피해자의 심리적 억누름을 분출시켜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치유의 공간 사이에서의 네트워크도 결국에는 유가족과 피해자, 더 넓게는 지역주민들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지원하여 일상으로 회복시키는 일로 볼 수 있고, 지역 문화의 창출도 일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새를 보이지 않지만 서로를 향한 유대감으로 이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세월호 참사는 극복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를 이미 넘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완전한 재편이 아니어서야 손을 쓸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이 숨어 있지만, 정작 치유를 하고, 그 안에서 치유를 지원하는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치유는 스며드는 것이고, 점진적인 것이며,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간다는 생각에 기초한 행위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의학적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도움을 주기는 했었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

들의 시선에서 정말 나아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반증일지 모른다. 다만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초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제가 있을 때 정당하게 대응해주는 것, 아마 이것이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상의 재조정을 시작으로 하는 움직임이 공감, 배려, 인정, 상호신뢰 등의 이상적인 단계까지 다다르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트라우마 치료에서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진상을 잘 밝히는 일이고, 이것은 이미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행복감을 느끼고자 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욕구 분출이라 할 수 있다. Oldenberg (1989)는 집을 제1의 장소, 직장을 제2의 장소, 그 외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공간을 제3의 장소로 명명하면서, 아픔에 대한 치료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고, 행복에 대한 추구가 큰 집단의 경우에는 제3의 장소를 다양하게 확보하는 특징이 나타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제3의 장소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데 중립적 바탕을 기초로 하며-도시에 대한 충실한 조연자인 Jane Jacobs의 도시민의 상호호혜적인 개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가치평등적이며, 대화가 중심이 된다. 또한 접근성과 시설적인 면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그곳을 방문하는 이들이 동일한 상상력과 상정을 공유하는, 이른바 사회적 본능(social instincts)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며, 반복적이면서도 솔직한 놀이가 충만한 분위기이고, 집은 아니지만 집과 같은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곳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면을 드러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심각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과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 서로를 지지하고 있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받게 된다. 그렇다고 특별한 시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동네의 작은 술집, 카페 등 사랑방과 같은 모임의 장소와 같이 인간애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보이지 않는 연결 고리가 확인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의 의미이다. 어쩌면 은연중에 자신들만의 아지트를 추구하던 행동은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지극히 당연한 것을 원하는 본능의 표현은 아니었을까 유추할 수 있으며, 세월호 참사 후 나타난 치유의 공간 기저에 깔린

바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가치의 향상을 들 수 있다. Kleinman *et al.*(1991)는 질병 혹은 참사와 같이 예상 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 인간은 좌절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인생에서의 가장 필요한 도덕적 가치와 원칙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상당히 양극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그는 참사와 사건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한층 더 성숙하고 고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 변모하는 인간의 모습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고 해석했다. 사회적 환경의 도덕적 딜레마 속에서 모순적이게도 인간은 가치와 원칙을 명확히 하는 기회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안산시 세월호 관련 치유의 공간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개별적인 치유의 공간을 통해, 그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 안산시 내외에 형성된 치유의 문화를 통해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안산시 내에서의 치유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역 내에서의 문화공동체적인 노력, 지역 외적으로 인간적인 호혜의 정신을 지속하려는 캠페인, 이전의 한국 사회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던 추모 문화 형성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에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순적 본질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면서 스스로 정화하고자 하는 촛불집회까지 그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일상의 재조정, 행복의 추구, 도덕적 가치의 함양을 근간으로 하는 세월호 참사 후 지역 커뮤니티에 형성된 치유의 공간의 앞으로의 과제는 지속성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Rowles(1978)는 특정한 지리적 범주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 애착을 즉시적(immediate), 일시적(temporary), 영구적(permanent)으로 구분하면서, 결론적으로 치유의 효율이라는 시선에서 판단하면 즉시적인 것보다는 영구적인 그것이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특별한 곳보다는 누군가의 삶에 있어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를 잡은 치유의 공간-집, 공원, 놀이 공간 등-에서는 영구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설령 즉시적이면서도 일시적인 감정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거나 일련의 것으로 이어진다면 효

율적인 치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의 파편과 같은 치유의 공간에서의 경험들이 하나로 모일 때 치유의 효과는 증진되고, 이것이 바로 치유의 줄거리(storyline)로 승화되는 것이며, 이러한 치유의 공간은 치유의 경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공급처가 되는 것이다(박수경, 2014).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피해자 집단이 아직 성장 중인 학생들이었으며, 광범위한 직간접적인 피해자 집단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급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접근과 달리, 선입견과 조급함의 시선을 거두고 끈기 있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지켜준 태도를 세월호 참사 관련 민간 중심 대안적 치유의 공간의 치유의 줄거리로 볼 수 있다. 기억의 저장소로서 치유의 공간에 누적된 힘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우리 사회의 어두운 진실과 맞설 수 있는 용기로 발현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관련 치유의 공간은 지속할 당위성을 가지며, 우리는 여기에서 지리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주

- 1) 단, <침표>는 일부러 단원고등학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했는데, 이는 생존자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의 목적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치유의 공간은 기술한 이유로 인해 단원고등학교와 조금 거리가 떨어진, 그리고 시선에서 벗어난 곳에 입지해 있다.

참고문헌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4, '상처입은 치유자' 위한 안산 생명센터 개관 <https://www.catholicnews.co.kr:446/news/articleView.html?idxno=13763> (최종접속일: 2016년 11월 16일)
- 시사저널, 2016, 생존자들 정서적으로 유대할 공동체가져야,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47980> (최종접속일: 2016년 11월 11일)
- 시사저널e, 2016, 동일본 대지진에 비춰보는 세월호 참사의 극복, <http://www.sisabiz.com/biz/arti>

- clePrint/156156 (최종접속일: 2016년 11월 11일)
- 연합뉴스, 2014, 세월호 치유공간 '힐링센터 0416 쉽과 힘' 개관,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9/15/0701000000AKR20140915102700061.HTML> (최종접속일: 2016년 11월 16일)
- 연합뉴스, 2016, 27년 만에 밝혀진 진실, 엠티스보로 참사는 팬 아닌 경찰 잘못,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6/0200000000AKR20160426206551085.HTML> (최종접속일: 2016년 11월 14일)
- 오마이뉴스, 2016, 힐스보로 유가족이 세월호 가족들에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9057&CMPT_CD=TAG_PC (최종접속일: 2016년 11월 14일)
- 박명립, 2015, “‘세월호 정치’의 표층과 심부 - 인간, 사회, 제도”, *역사비평*, 110, 8-36.
- 박수경, 2014, “일상적 삶에서의 치유의 공간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심리상담카페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9(4), 546-562.
- 박수경, 2015, “영적 치유의 경관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한국 천주교 순례지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1(1), 143-166.
- 박수경, 2016, “일본 온천을 중심으로 본 물을 매개로 하는 치유의 경관에서의 여성적 요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3), 529-552.
- 오경석·박선권·정건화·이덕재·이미홍·이인재·장영진·정준호, 2008, *전환기의 안산: 쟁점과 대안*, 도서출판 한울.
- Curtis, S., 2010, *Space, Place and Mental Healthy*, Surrey: Ashgate.
- De Leon, G., 2000, *The Therapeutic Community: Theory, Model and Method*,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Echterling, L. G. and Wylie, M. L., 1999, In the Public Arena: Disaster as a Socially Constructed Problem, in Gist, R. and Lubin, B. (eds) *Response to Disaster*, Philadelphia: BRUNNER/MAZEL.
- English, J., Wilson, K, Keller-Olaman, S., 2008, Health, healing and recovery: Therapeutic landscapes and the everyday lives of breast cancer survivor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7(1), 68-78.
- Erikson, K., 1976, *Everything in its path: Destruction of community in the Buffalo Creek flood*,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Eynde, J. and Venno, A., 1999, Coping with Disastrous Events: An Empowerment Model of Community Healing, in Gist, R. and Lubin, B. (eds) *Response to Disaster*, Philadelphia: BRUNNER/MAZEL.
- Gesler, W. M., 1992, Therapeutic landscapes: medical geographic research in light of the new cultural geograph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4(7), 735-746.
- Gesler, W. M., 1993, Therapeutic landscapes: theory and a case study of Epidaurous, Gree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1, 171-189.
- Jack, S., 2014, *Collective Trauma, Collective Healing*,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Kennard, D., 1983, *An introduction to therapeutic communities*, London: Routledge and Kagan Paul.
- Kleinman, A. and Kleinman, J., 1991, Suffering and its professional transformation: toward an ethnography of interpersonal experience, *Culture, Medicine, and Psychiatry*, 15(3), 275-301.
- Miligan, C., Bingley, A. and Gatrell, A., 2005, 'Healing and Feeling': The Place of Emotions in Later Life, in Davidson, J., Bondi, L. and Smith, M. (eds) *Emotional Geographies*, Hampshire and Burlington: Ashgate.
- Miligan, C. and Wiles, J., 2010, Landscapes of car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4(6), 736-754.
- Norris, F. H., Stevens, S. P., Pfefferbaum, B., Wyche, K. F. and Pfefferbaum, R. L., 2008, Community Resilience as a Metaphor, Theory, Set of Capacities, and Strategy for Disaster Readi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 127-150.
- Oldenberg, R., 1989, *The great good place*, Philadelphia: Da Capo Press.
- Parr, H., 2007, Mental health, nature, and social inclusion,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5, 537-561.
- Rose, E., 2012, Encountering place: A psychoanalytic approach for understanding how therapeutic landscapes benefit health and wellbeing, *Health and*

- Place*, 18, 1381-1387.
- Rowles, G. D., 1978, *Prisoners of Space? Exploring the Geographical Experiences of Older People*: Colorado: Westview Press.
- Saul, J., 2014, *Collective Trauma Collective Healing*,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Smyth, 2005, Medical geography: therapeutic places, spaces and network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4), 488-495.
- Staab, J. P., Fullerton, C. S. and Ursano, R., 1999, A Critical Look at PTSD: Constructs, Concepts, Epidemiology, and Implications, in Gist, R. and Lubin, B. (eds) *Response to Disaster*, Philadelphia: BRUNNER/MAZEL.
- Sternberg, E. M., 2009, *HEALING SPACE: The Sciences of Place and Well-bein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illiams, A., 1998, Therapeutic landscape in holistic medicin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6(9), 1193-1203.
- Willis, A., 2009, Restoring the Self, Restoring Place: Healing through Grief in Everyday Places, *Emotion, Space and Society*, 2(2), 86-91.
- Wood, V., Curtis, S. E., Gesler, W., Spencer, I. H., Close, H. J., Mason, J. and Reilly, J. G., 2013, 'Creating' therapeutic landscapes' for mental health carers in inpatient setting: a dynamic perspective on permeability and inclusivit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91, 122-129.
- Yates, S., Axsom, D. and Tiedman, K., 1999, The Help-Seeking Process for Distress after Disasters, in Gist, R. and Lubin, B. (eds) *Response to Disaster*, Philadelphia: BRUNNER/MAZEL.
- 교신: 박수경, 110-74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2길 20 상명대학교 지리학과(이메일: maria1570@smu.ac.kr)
Correspondence: Sookyung Park, Department of Geography, Sangmyung University, Hongjimoon 2 Gil 20, Jongro-Gu, Seoul, 110-743, Korea (e-mail: maria1570@smu.ac.kr)
- 최초투고일 2017. 1. 31
수정일 2017. 2. 15
최종접수일 2017. 2. 22